



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11월 2일 ~ 11월 8일)

월	안미경, 백혜원 세실리아, 이숙희 루피나, 이은지, 김재숙 엘리사벳, 오영덕 발렌티노, 김영란 임마누엘라, 김영진 요셉, 민수경 루시아, 권수선 마리아, 이정아 안젤라, 서주원 미카엘라, 백태영 헬레나, 옥연우 율리아, 이정민 데레사
화	강지현 안토니오, 신강재 베드로, 한상민 베드로, 조정여 데레사, 홍현아 엘리사벳, 최상일 레미지오, 박지호 모세, 김상후 스테파노, 장숙자 세실리아, 이범현 라우렌시오, 우제민 엔플레다, 임상미 소화데레사, 최상건 세례자요한, 김옥란 로즈마리, 김승남 루치아노
수	홍승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위순희 그라시아, 현경옥 소화데레사, 여은미 소피아, 김두진 요한, 정재연 미카엘, 임정숙 레아, 신호수 골롬바, 김인애 아녜스, 변용익, 이나경 베네딕다, 민혜경 루시아, 김순명 세실리아, 민옥자 베아트릭스, 김상순
목	이희숙 테클라, 김운성 하상바오로, 김동출 시몬, 김종호 펠릭스, 이상호 요셉, 최춘희 안토니오, 김지연 엘리사벳, 심영애 마리아, 정연우 루치아, 안영민 보나벤투라, 유준선 다미아노, 오순섭 프란치스코, 이계호 요한 금구, 이태은 대건안드레아, 오부자 루치아
금	최일춘 아가다, 한정연 요셉피나, 최숙자 마가렛, 최철규 요한, 심순기 소피아, 한순덕 로사, 류문희 마르코, 장미현 콜레타, 김명례 카밀라, 천명숙 세실리아, 최남규 그레고리오, 최효정 아가다, 김선희 루시아, 고봉수 사비나, 지누리 파멜라
토	박옥숙 리디아, 정금숙 다니엘라, 이희순 데레사, 지형준 미카엘, 박종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손미령 카타리나, 문인숙 마리아안젤라, 조필원 루카, 강경미 글라라, 박정남 글라라, 정정자 마리아나, 황지은 안젤라, 김연숙 엘리사벳, 안경애 수산나, 김려원 크리스티나
주일	김순진 엘리사벳, 박석인 마태오, 유혜은 헬레나, 손성숙 유스티나, 한선희 데레사, 고봉운 리카르도, 길명자 마리아, 박상광 마티아, 강봉자 실비아, 유정희 데레사, 신양순 아가다, 백준희 마리아, 유재익 마르코, 권혜숙 마리아나, 이완수 엘리사벳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7명 중 주일미사 171명 참례 / 참례율 : 23.85%

평일미사	토 (10/24)	월 (10/26)	화 (10/27) 내촌 / 본당	수 (10/28) 본당 / 송정	목 (10/29) 송정 / 본당	금 (10/30)
	11명	15명	16명 / 20명	15명 / 9명	7명 / 25명	16명
주일미사 (10/25)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17명	24명	21명	24명	66명	19명



위령 성월 유래와 의미

죽은 이들 기억하고 기도... 한국 교회에선 연도로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Hodie mihi, cras tibi).’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라틴어 경구가 떠오르는 위령 성월이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며, 언젠가 맞을 자신의 죽음도 돌아보는 시기다. 신자들은 11월이면 고인을 위한 미사와 기도에 더욱 마음을 모은다.

위령 성월의 중심에는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이 있다. 교회는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에 하늘의 모든 성인을 기념하고, 이튿날에는 세상을 떠난 이들, 특히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 가족과 친지뿐 아니라 죽은 모든 이가 기도의 대상이다.

10세기 말 프랑스에서

998년 무렵 프랑스 클뤼니 수도원의 성 오딜로 아바스는 자신이 관할하는 수도원의 수도자들에게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 날 죽은 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도록 했다. 이후 이 관습은 교회 전역으로 퍼졌고, 11월 한 달 동안 위령 기도를 바치는 신심도 자리 잡았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의 뿌리는 구약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다 마카베오는 전투에서 죽은 이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속죄 제물을 바치게 했다.(2마카 12,43-45 참조) 초기 교회도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성찬례를 봉헌했다.

위령 기도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바탕을 둔다. 지상의 신자와 연옥의 영혼, 하늘의 성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돼 서로를 돕는다는 믿음이다. 살아 있는 이는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성인은 지상의 신자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한다.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이들이 하늘의 기쁨에 들어가기 위해 거치는 마지막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른다.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미사와 기도, 자선과 보속을 권하는 것은 이 정화를 돕기 위해서다.

한국 연도, 고유한 가락과 구성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은 조상을 공경하는 효성과 이웃의 장례를 함께 치르는 문화 속에 뿌리내렸다. 박해 시대 신앙 선조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서도 죽은 이를 위한 기도로 조상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 전통을 보여 주는 기도가 ‘연도’다.

연도는 전통적으로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를 뜻하며, 오늘날에는 ‘위령 기도’로 불린다. 신자들은 선창과 후창으로 나뉘어 시편과 성인 호칭 기도 등을 우리 가락에 실어 노래한다. 한국 연도는 고유한 가락과 구성으로 발전한 전례 토착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연도의 내용은 1865년 목판본으로 간행된 상장례 예식서 「천주성 교예규」에 자세히 실렸다. 이 책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상장 예식」의 바탕이 됐다. 「상장 예식」에는 연도와 염습·입관, 장례 등 고인을 떠나보내는 과정에 필요한 전례와 기도가 담겼다.

이웃의 장례를 함께 치르던 문화는 오늘날 빈소에서라도 이어진다. 빈소에서 위령 기도를 바치는 건 유가족 곁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연령회 회원들은 장례를 도우며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한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죽음의 슬픔을 나누고 부활의 희망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일로 이어진다.

11월은 전례주년의 끝자락이기도 하다. 이 시기 미사에서 봉독되는 종말에 관한 말씀은 삶의 끝과 완성을 묵상하도록 이끈다. 위령 성월은 먼저 떠난 이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며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성찰하는 시간이다.



성산 갈바리아의 성십자가성당

SEONGSAN CATHOLIC CHURCH



우리들의 정성

연중제30주일

주일 헌금	904,000	주일헌금(송정)	164,000	교무금	870,000
양성, 복지, 원로	80,000	미래 기금	50,000	감사헌금	300,000

교무금 이형귀, 김종녀, 신명자, 박인옥, 안유례, 김은자, 안남선, 최재길, 김민자, 이종석, 박갑춘, 유옥순, 강인식
감사헌금 전보일(바오로) 3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10월 30일 기준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310,000	12,329,000
		약정 기부	6,200,000	169,380,000
		2차 헌금	666,000	11,445,950
		기타 수입	740,000	27,717,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15,068,010	299,805,336
		매일미사	11,143,040	126,843,160
		평화방송	20,260,000	299,167,209
		가톨릭 평화 신문	972,000	22,591,000
		가톨릭 신문	2,145,000	64,010,000
		ARS 후원	11,007,470	12,132,470
		기타 후원	338,000	22,550,000
	합 계		68,849,520	1,067,971,588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14,930,000
	모금 홍보	광고비		77,651,200
		모금 준비비	42,520	12,838,560
		봉사자 지원비		4,366,160
	합 계		42,520	145,827,490
현 잔액		1,588,992,014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7세대 195,420,000원 중 169,380,000원 납부 (납부율 86.67%)

정동주, 김정의, 문경숙, 송기준, 사정애, 이명희, 박광열, 이향숙, 소옥선

타본당 모금

스무숲성당 883,010원 백혜원, 이숙희, 박찬애, 정혜영, 윤창섭, 이은지, 백정자, 서순자, 이명화, 이명숙, 김재숙, 강정순, 정남균, 유창연, 김명숙

죽림동성당 335,000원 엄명자, 송한주, 김경희, 김자운, 남궁주일, 손문자, 손명자, 오영덕, 진선희, 목진수
교동성당 1,440,000원 임혁진, 이남순, 김정수, 김태형, 강지희, 김춘자, 박종각, 김영란, 김영진, 황상숙, 김미령, 원현철, 이상배
철원성당 780,000원 민수경, 권수선, 이봉우, 이수옥, 김은식
퇴계성당 3,770,000원 정선이, 김옥화, 이진수, 이해연, 박은주, 김영현, 조길환, 허명옥, 박현이, 이연종, 이하나, 이예은, 박찬현, 최영애, 권오봉, 지학수, 김은경, 정아연, 류영민, 이인옥, 김재문, 퇴계성당러닝크루, 김태완, 이정화, 이의정, 양은재, 양희재, 정혜련, 이명희, 허광순
응암동성당 7,860,000원 조아라, 정재경, 김지희, 문순옥, 이종임, 김태석, 방미정, 김시옥, 정금자, 함명숙, 김중옥, 강은자, 전호덕, 이영순, 이선용, 서정범, 박성원, 서준영, 이연원, 김옥선, 정규석, 박창근, 김희성, 정묘연, 나봉석, 윤예지, 윤원기, 문정길, 이종복, 성영희, 김석원, 권미경, 이우재, 조희연, 엄수희, 이인희, 권숙희, 황재선, 김효정, 김정애, 염태건, 이윤희, 안지후, 송희운 이현수, 윤석빈, 구절자, 정정원, 신현영, 강주자, 김현정, 김태선, 김관중, 심광섭, 김용주, 이숙희, 정경임, 조영미, 김효순, 이미정, 이찬수, 김숙자, 김보경, 김용복, 박은미, 조입분, 박영선, 이희정, 양계순, 임인순, 윤옥순, 박정숙, 박애순, 김도재, 곽연자, 한상욱, 김선옥

매일미사 정성훈, 연제숙, 이경화, 윤건중, 임창래, 이병희, 백승태, 권기열, 김월순, 김병희, 고미옥, 나경민, 김보덕, 윤주실, 이순자, 이재상, 나순옥, 김영숙, 김혜원, 배수연, 전민식, 박민자, 정균, 김혁, 김현숙, 박영숙, 유정순, 신명철, 이병희, 박송림, 정명희, 김기주, 노우현

평화방송 김미옥, 김운한, 강길자, 김영옥, 홍영애, 변난훈, 김상희, 강계순, 김경숙, 장영식, 장순필, 양길자, 김구용, 김영애, 한봉남, 홍춘자, 양풍금, 김소제, 강정원, 양희승, 조재연, 조현정, 김예진, 박윤숙, 서순덕, 장복희, 김윤숙, 유금순, 김시경, 김순금, 정환일, 이재숙, 문옥수, 박경순, 지미애, 김순자, 변선자

가톨릭신문 조영호, 박형임, 황인선, 김훈, 조효민, 정보옥, 고정민, 김현경, 한지우, 조경애, 방명선, 김현미, 이종선, 황정나

가톨릭 평화 신문 차효숙, 김선희, 황상순, 한상아, 정구완, 김용우, 김익현, 조청심, 강만호, 한상록

기타후원 배노미, 이현숙, 최상봉, 엄인영, 문지혜

지출 - 모금 준비비 모금용 휴대폰 요금 29,320 ARS 이용료 13,200

레지오 훈화 2-6.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1)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1950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에 교황령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통하여 성모 승천을 교의로 선포하셨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께서는 지상 생활을 마치신 다음 영혼과 육신으로 천상 영광에 들어올림을 받으셨다”. 이 교의가 선포되기까지 오랜 세기 동안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전승이 있었다.

사실 성경은 십자가 아래 계신 마리아(요한 19,25-27 참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성령을 받으신 마리아(사도 1,14 참조)의 모습을 전하여 준다. 그 이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전하여 주고 있지 않다. 4세기 말엽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오 교부가 처음으로 마리아의 생애 마지막에 관하여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을 가능성, 시메온의 예언에 비추어 순교하셨을 가능성, 그리고 요한 묵시록 12장에 비추어 하늘에 불러 올림을 받으실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것은 구원된 모든 사람이 장차 얻게 될 상급이기 때문이다. 그 뒤 예루살렘의 티모테오 교부가 루카 복음 2장 34절을 해설하면서, 마리아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과 더불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마리아의 생애 마지막에 관한 많은 외경들이 전해지기 시작하였고, 마리아의 승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제르마노 교부는 마리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다를 수 없기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셔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방 교부로서 투르의 그레고리오는 처음으로 마리아의 승천 이야기를 전하여 주고 있다.

6세기 전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기념일’, ‘마리아의 잠드심’, ‘마리아의 하늘에 오르심’ 축일이 거행되었다. 그 이후 많은 신학자들도 성모 승천에 관한 전승을 이어받았다. 마리아의 무죄성에 근거한 육체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을 주신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육체와 유사성에 근거한 승천, 우리를 위한 천상에서의 중재를 위하여 하늘에 계셔야 하는 이유, 또는 예수님의 승천과 장래에 있을 우리 승천의 중간 단계로서의 필요성 때문에 마리아의 승천을 수용하였다.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성모신심, 23-24쪽>